제2강 박범신 「바이칼 그 높고 깊은」Ⅱ

(1교시)

7. 에피소드의 적절성

<하나>

- M.T (168p)
- 바람 속 스무 살 (171p)
- 탄생: 장미꽃 바구니를 보고 울음을 그치는(아름다움을 아는 능력= 미의 본질을 아는 능력) (170p)
- 대학교: 혼자서 대자보를 붙이는 뒷모습 (175p)
- 쓸쓸한, 그러나 달려가는 불(火)의 냄새가 네 몸에서 나더라 (176p)
- 모두가 더불어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았던 애 (176p)
- 잘 자거라, 혁명을 꿈꾸는 어린 전사야 (177p)
- 네가 한 아름도 더 되는 커다란 유리병에 시너와 석유기름을 섞어 붓는 꿈이었어. 꿈속이었지만 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화염병을 만들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차렸지. 마치 장인(匠人)처럼 넌 그 일에 열중해 있었다. 그렇게 큰 화염병을 과연 누가 던지겠느냐고 내가 말했던 것 같아. 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. (…) 나는 네가 젊은 무사 예니쎄이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단다. (179-80p)
- 중학생 시절: 학생들의 가방검사에 항의해서 운동장에 나가 항의시위를 함 (189-90p)
- 고3 수험생 시절: 공부와 냉면과 소주 석 잔 (193p)
- 통일축전을 벌이려던 시위학생들이 대학 과학관 건물에 고립되어 경찰과 대치상태가 여러 날 째 계속된다는데요. (204p)
-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에 찢어진 신문지 한 장 깔고 모로 누워 잠든 너 (207p)
- 난 알아차렸구나, 하나야. 깡마른 체구, 훤칠한 키, 그리고 부드러운 턱선 안에 단단한 이념의 그물코를 감추고 있는 그 청년이 너의 젊은 무사 예니쎄이라는 것을. (207-8p)

(2교시)

▲ 등장인물의 삶(스토리)을 소설구성(플롯)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솜씨도 눈여겨보아야 함
(현재→탄생→대학 초년→현재→중학교→대학교→고3→유치원→현재 대학 시위장소)

<오토바이 탄 남자>

- 털로 짠 벙거지를 쓴 남자 (184p)
- 먼지 낀 꾀죄죄한 옷차림과, 땟국물로 번질거리는 검붉은 얼굴과, 부러진 자리를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굵은 뿔테의 도수 높은 안경을 낀 남자는, 차림과 달리 오토바이에 척 걸터앉은 자세만은 아주 꼿꼿하고 당당해 차라리 희극적으로 뵈더라. 마치 노새를 탄 돈키호테처럼. (184-5p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 루리 차 혼쨴? 차찬 뿌아헌. 뜻을 모르는 말, 아마 브랴뜨족의 말인 듯.
-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아주 먼, 먼,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곳, 러시아 내의 이어도를 그리워하고 있음엔 틀림없어. (…) 탐욕은 없으되 색법(色法)은 다 벗지 못한 색계(色界)와, 색법을 다 벗어내 현상(現象)의 만 가지 그림자가 일체 사라진 무색계(無色界)에 이르기까지, 한 몸에 모두 갖고, 자유자재, 그 몸 바꿀 수 있는 바이칼의 무한정한 법칙에 어떤 순간, 영혼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닐까. (188p)
- 트럭 고장을 고쳐준 사내 (197p)
- 바이칼로 오토바이와 함께 뛰어든 사내 (201p)

<민들레>
- 부드러운 바람에도 천지사방 날아가, 또 나고, 또 자라는, 천 번에 넘는 외침과 혹독한 압제를 견디면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족의 혼을 닮은 야생의 꽃 민들레. (176p)
-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… 작은 씨 감추어 견디다가 대지가 풀리는 계절이 오면 마침내 그 싹을 피워 영롱한 꽃잎들을 피워내는 들꽃… 그들이 이쁜 것은 길고 잔인한 시베리아의 혹한을 견디어냈기 때문이 아니라, 사실로 말하자면, 마침내 그들이 영롱한 제 빛깔을 제 목숨에 담아 꽃을 피워냈기 때문이야. (209p) = 꽃의 본질.

8. 명명법
하나 = 민족의 본질 = 하나로 통일된 조국 =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뇌하는 젊은이
하나: 우연히 붙인 이름이 아님 → '통일조국에서 반드시 살게 될 젊은 하나' (209p)

9. 문예사조
낭만적 사실주의

10. 주제
진정한 본질에 대한 탐구

하나가 추구하는 본질 = 혁명을 일으킨 청년장교들이 생각했던 당대의 바람직한 본질 = 장교들을 사랑한 러시아 여인들이 추구한 사랑의 본질 = 「유정」의 최석과 남정임이 추구했던 사랑의 본질 = 민족의 본질 = 민들레꽃의 본질 = 오토바이 탄 사내가 추구한 삶의 본질

▲ 제목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
「바이칼 그 높고 깊은」: 높고 깊은 그 사이의 간극이 본질 탐구의 높이와 깊이다.

▲ 에피소드의 적절한 원용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. 좋은 단편소설의 전형을 보여준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